

01 교회소식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은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영광 돌렸다.

02 생명의 말씀

관용의 지혜

‘진리가 풍성히 임하고 진리의 자유함 속에 넉넉한 마음’이 되면, 법사에 밝은 길을 볼 수 있는 ‘명철’이 임한다.

03 기획특집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2018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며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러시아 목회자들.

04 간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응답!

만민을 만나 감사가 넘치는 페루 앙헬리가 꺾뽀스 성도와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김예림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853호 2018년 8월 2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넘쳐요!”

세계 곳곳에서 GCN방송으로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의 세계에서는 육의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며, 비록 공간이 떨어져 육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해도 마음이 하나 이면 같이 있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난 8월 6일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2018 만민하계수련회’가 GCN방송을 통해 생중계 됨으로 현장에서뿐 아니라 직접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시공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첫째 날 교육 후, 당

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 이수진 목사(교역자회 회장)가 단에서 전체기도를 해주었을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에이즈 말기와 결핵으로 죽어가던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데보라 성도의 오빠는 기도받은 뒤, 새 힘이 솟고 식욕이 좋아져 그 주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몽골에서 기도받은 히식트 성도(52세, 여)는 시력이 좋아져 안경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당뇨로 인한 발가락 통증도 사라졌다.

인도 델리만민교회 로시니 데비 성도(62세, 여)는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진 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금식기도와 더불어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며 수련회를 준

비했더니 기도받은 뒤 무릎 통증과 부기가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도 마두라이만민교회 안날 성도(79세, 여)는 성령의 불이 온몸에 임한 뒤 금이 간 오른쪽 다리뼈로 인한 통증과 부기가 사라져 잘 걷게 되었고, 첸나이만민교회 마야웰루 성도(34세, 남)는 척추골절을 치료받는 등 많은 성도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였다.

해외 농아 성도들에게도 시공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났다. 태국 치앙마이만민농아교회 칸차나 시메 성도(32세, 여)는 오른쪽 귀에서 날카로운 느낌이 든 뒤 귀가 열렸고, 프랑스 파스칼 성도(50세, 남)는 양쪽 귀가 전보다 확연하게 잘 들리게 되었으며, 말레이시아 프렘라 성도(40세, 여)도 오른쪽 귀가 더 잘 들리게 되었다.

일본 동경타바타만민교회 나가시마 게이코 권사(47세, 여)는 칼로 도려내는 듯이 심각한 편도선 통증을 치료받았으며, 필리핀 세부만민교회 퀴니 안셀로 자매(22세)는 기도받은 직후 취업이 되는 등 성도들은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받았다.

한편, 본교회 김교순 명예권사(1대대 5교구, 81세)는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심해 수련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부득불 집에서 GCN방송을 통해 참석하였는데, 기도받은 뒤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혈압이 117까지 올라갔으며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성경 66권의 기록이 참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과 권능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18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한 러시아 목회자들

해외 25개국에서 참석한 ‘2018 만민하계수련회’에 러시아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닌그라드, 서우랄 지역에서 총회장과 목회자들이 함께하였다. 8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2박 3일간, 교육과 체육대회, 그리고 캠프파이어에 참여한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행복한 일정을 보냈다.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목사
(칼리닌그라드 지역 총회장)

“서울에서는 무척 더웠는데, 수련회장은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사입니다. 또한 조직력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주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되고 화목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예수교러시아연합성결회 총회장)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만민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련회는 영적인 축제였으며,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천국의 행복함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요. 올해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레리 트레노긴 목사
(서우랄 지역 선교회 총회장)

“제가 이런 은혜로운 축제에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에 저도 행복해집니다. 이곳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특히 캠프파이어 때에는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찬양을 감동적으로 할 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관용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바둑도 훈수하는 사람이 세 수를 더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두는 사람의 실력이 낮다 해도 심리적 부담으로 쉬운 것도 못 보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 보는 사람은 승패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만큼 여유가 있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에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안다 해도 눈앞의 유익에 집착하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옳은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관용의 열매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1. '관용'의 영적 의미

사전을 보면 '관용'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함'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는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는 사심이 없고 진리가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풍성한 진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셨고, 그 마음이 온전한 진리 자체였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요.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고 쉬시지 못하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영혼들을 위해 많은 수고와 눈물을 쏟으셨으며, 결국은 생명까지 주심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었습니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람(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축이 많아져 자 아브람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풀과 물을 얻기 위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롯과 따로 살기로 결단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지요. 그러자 롯은 아랫사람이고 그가 받은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브람과 함께함으로 임한 것임에도 선뜻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을 먼저 고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지요. 얼마든지 내어주고 더 달라 해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과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람은 넘치는 관용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자신

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이상의 선을 행했기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지켜야 똑똑하다고 합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하고, 하나를 주면 그 이상을 받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 말씀한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며 참된 지혜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험기, 욕심 등이 있는 만큼 너그러워하고 관대한 모습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의 영적 의미를 '마음에 진리가 풍성하게 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2. 관용의 지혜로 누리는 복

진리로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가 됩니다. 마음에 진리를 가득 채워 넉넉한 관용을 이루면 내 것을 나눠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남이 나보다 잘되는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지도 않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교회를 개척하여 넉넉하지 않을 때에도 다른 개척교회들을 지원했습니다. 쓸 것을 아끼고 아껴서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 투자했지요. 속웃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겉웃까지 주었고, 애매하게 오른뺨을 맞아도 화평을 좇을 수 있다면 왼뺨까지 대주었습니다. 때로는 속이는 줄 알면서도 속아 주었지요. 대항할 힘이 없어서 맞은 것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일 안에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고, 교회는 갈수록 더 풍성하고 넉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돌아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고후 12:15)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괜한 헛수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때 디모데와 같이 그를 아버지로 여기며 사랑하는 일꾼들이 나왔고,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 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아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은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갈 4:15).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또 영혼들을 살리고 상한 심령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3. 관용에서 나오는 진리의 자유함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에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관용'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자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에는 진리가 족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지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안식일에는 영업을 하지 말라거나, 세상 오락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족쇄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일성수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이로써 자신이 평안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한 주간 재앙이나 사고 없이 보호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7일 동안의 수입 이상을 벌게 해 주실 수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실 수도 있지요. 질병과 사고에서 지켜 주심으로 병원비나 약값 등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진리를 알고 행하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고 늘 지킴 받으니 삶이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예전에는 미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민망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으나 미움을 버리면 진리가 죄의 멍에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가득하면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춰 정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다'는 것은 진리를 머리로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을 알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고전 8:1). 이런 사람은 상대가 섬김 받기 원하는

모습을 보면 금방 판단 정죄하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마음에 진리가 임한 사람은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바라봐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만, 상대의 허물과 비진리를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지요. 예전에는 자신도 수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4. 관용의 마음을 이룰 때 임하는 명철

진리가 풍성히 임하고 진리의 자유함 속에 넉넉한 마음이 되면, 범사에 밝은 길을 볼 수 있는 '명철'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그들은 평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용서하라" 하시면,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 정죄할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 없이 바닥에 무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답변을 재촉하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땅에 쓰기를 계속하셨지요. 군중은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인 내용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죄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결국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수치와 두려움 속에 떨다가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여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긍휼을 베푸는 관용의 마음도 있었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하나님의 참뜻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셨지요.

만일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답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불쌍하다 해서 무조건 "살려 주라" 하셨다면, "율법을 거역하도록 가르친다"는 정죄를 받아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지요. 또한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만

죄인이 불쌍하다 해서 무조건 용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누룩처럼 퍼져 더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딤후 2:4).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지혜는 예수님께서서 군중의 잘못을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고 바닥에 쓰셨다는 데 있습니다. 모여든 사람을 대놓고 판단 정죄하여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정통으로 찌를 때에는 반발이 생긴다는 것을 아셨기에 다만 바닥에 쓰인 자신의 죄목들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전하면 이를 듣는 사람이 즉시 무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도 이리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며 말문을 막아 버립니다. 너나 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허물을 말한 사람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것도 옳다 할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고 자신도 똑같이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듣는 상대는 비록 자신이 잘못했다 해도 감정과 서운함을 품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를 마음에 이루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쌓으면 그 지식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루어야 하며 그럴 때 상대를 넉넉히 품을 수 있습니다.

관용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가 악으로 행한다 해도 판단, 정죄하지 않으며 그를 소중한 영혼으로 여기고 진리로 이끌어 주지요. 이 마음을 이룰 때 상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으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5장 1~2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한 행함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넉넉한 관용의 마음을 이루어 언제 어디서나 선한 향기를 발하며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한 러시아 목회자들



안드레이 벨라예프 목사
(상트페테르부르크만민교회)

"한국에서의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교육 말씀을 통해 영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비결 중 하나인 선(善)이 제게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었지요.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오니드 아르투흐 목사
(칼리닌그라드 뉴 스타트교회)

"수련회 어디서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보며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았고, 치료받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현장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는 성령,
참된 지혜는 머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Wisdom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제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안헬리카 캄보스 성도 (57세, 페루만민교회)

저는 엔라쎬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천국’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후 2012년 5월, 페루만민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해발 4,380m의 세로데 파스코 지역은 수도 리마에 위치한 교회까지 버스로 왕복 16시간이나 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에 출발해 토요일 새벽 5시에 리마에 도착하면 자녀들이 지내는 집에서 묵은 뒤 주일 대예배와 오후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와야 했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행복해서 한 주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14년 된 요실금을 치료받고 좋은 직장을 얻는 축복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2014년부터는 제가 사는 지역에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함께 모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성전이 세워져 각종 예배와 다니엘절야

기도회를 드리며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올해 7월 4일, 남편이 빈혈과 위장출혈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7.6g/dL(정상 수치:13.0~16.0g/dL)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이었지요. 병원에서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여러 검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계속 받게 해 주면서, 6일에는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남편 몸에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병원측 예상과는 달리, 위궤양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할렐루야!

저는 8월 초, 한국에서 열리는 ‘2018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10년 전부터 발병한 신장질환을 꼭 치료받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 질환은 특히 더운 날씨에 하체가 퉁퉁 부어 허리

둘레가 30에서 46인치까지 늘어나는 증상이 나타나 한 여름이라 무더운 한국에 가는 것이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사모함으로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듬뿍 주셔서 통회자복도 많이 하였습니다.

드디어 수련회 첫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 감사 이수진 목사님이 단에서 전체기도를 해 주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서 치료된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서울에 온 뒤 폭염 속에서 많이 걸어다녔는데도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컨디션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저는 치료는 물론, ‘만민’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능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2018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한 페루만민교회 김향영 목사와 성도들.



“세상 것을 끊고 기도하니 아토피성 피부염이 치료되었어요!”

김예림 자매 (19세, 고3선교회)

초등학교 시절, 종아리 뒷부분에 간헐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재발되면서 급속히 악화되었지요.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세상 노래를 듣고 안 좋은 동영상도 보며, 게임에 빠져 마음이 온통 세상에 쏠리니 공부도 신앙생활도 관심이 없던 때입니다. 특히 손과 발에 피부염이 심해 손은 늘 가려웠고, 발바닥까지 번져 절뚝이며 걸어야 했지요. 병원에 가보니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약을 먹고 연고도 발라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당회장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 그 앞을 나가 기도받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끊으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다시 취하는 제 모습에 제 자신도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7월 말경, 만민하계수련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다니엘절야에 참석해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변화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다 삭제하고 200곡이 넘는 가요도 지웠습니다. 이후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며 심장이 새로 뛰는 것처럼 기쁨이 임했지요.

또한 하계수련회 때 1세대 여자줄다리기 선수로 출전하기로 결심하고 변개함을 버리기 위해 매일 연습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발과 손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하였지요. 이전에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정말 눈에 띄게 호전되어 너무 신기했습니다. 수련회 전에 이미 치료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맨발로 다닐 수 있고, 상처 때문에 숨기고 싶었던 손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8월 초, 저는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사랑이 밀려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가 넘쳤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너무 가볍고, 빨리 변화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 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북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성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352-8336